

비정규노동 수기와 노동의 기록화

A Study on the Contingent Worker's Handwritings and
Documentation of Labor

곽건홍(Kwak, Kun Hong)*

1. 왜 비정규노동 수기인가?
2. 기록되지 않은 노동, 그리고 아카이브
3. 자기재현의 비정규노동 수기가 말하는 것들
4. 무엇을 기록화할 것인가?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부교수.

■ 투고일: 2020년 3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4월 15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04월 20일
■ 기록학연구 64, 5-25,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4.005>

〈초록〉

아카이브는 노동기록의 부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흔적을 기록화해야 한다. 곧 비정규 노동자의 행위와 고통을 기록으로 재현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억압적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당대 아카이브의 책무이다. 노동수기 등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묘사하는 기록이 현재사를 상징하는 기록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아카이브는 이를 기록화해야 한다. 아카이브는 중립성의 환상을 폐기해야 한다.

주제어 : 비정규 노동자, 노동수기, 기록화, 자기 증언 기록, 아카이브

〈Abstract〉

The archives should not document the absence of labor records, but document the traces of workers' lives. In other word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rchive to reproduce the acts and sufferings of contingent workers with records, and to reveal the oppressive structure of capitalism based on them. Records representing the lives of contingent workers, such as labor manuals, should be at the core of records that symbolize the present, and archives should be documented. The archives should discard the illusion of neutrality.

Keywords : contingent worker, handwritings, documentation, ego-document, archives

급할 때 급하게 불러다 쓰는 하루살이
일용직 근로자를 빼고라도
파견근로자 위에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위에 사내 하청근로자
사내 하청근로자 위에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위에 계장 과장 부장 또
그 위와 그 위 더욱더 그 위와 그 위...

육봉수, 관계 -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야기 중에서

1. 왜 비정규노동 수기인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는 해마다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 노동자는 2019년 11월 말 현재 748만 명에 이른다(김복순 2020.1, 125). 비정규노동의 특징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이 노동조건에 차이는 물론이고, 노동자 개인의 일상생활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김성희 2010, 70).

비정규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는 노동시장을 분단시키고, 노동 빈곤층을 양산했다. 그 결과 사회적 양극화는 가속화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정규노동 개혁 과제는 여전히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노동 문제는 노동에 국한된 의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노동 있는’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싸움을 방관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중립으로 남을 수 없다”(Fleming David 2015, 8)

이 글은 아카이브의 중립성을 부정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당파성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사회, 그리고 아카이브가 비정규 노동자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기록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비정규노동 수기에 주목하는가? 첫째, 비정규노동 수기는 적나라한 노동 현실을 폭로하고 있으며, 그것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현장의 절박함과 진실성을 담고” 있으며, “노동자 현실을 당사자 시각으로 정직하고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안미선 2018.1, 63).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투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단함, 절망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힘과 희망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편집자주 2017.1, 47). 아울러 비정규 노동수기는 현재의 노동자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한 노동 주체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 측면에서 비정규노동 수기는 자기 증언 기록(ego-document)이고, 일상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기록이면서, 공론장에 참여하여 발화된 공동체 기록이며, 사회와의 관계에서 생산된 ‘사회 기록’이다. 요컨대 비정규노동 수기에는 개인의 고단한 삶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의 존재를 규정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층적 모순 관계가 드러나 있다.

셋째, “사회적 기억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누락되었던 기억을 소환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록화 작업의 결과는 ‘수집실행지침’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서울기록원 2019, 18). 이 글에서는 자기재현 기록인 노동수기, 곧 실제 기록에 기초한 기록화 주체의 선별을 통해 노동자들이 발화한 노동 현실을 드러내고자 한다.

비정규 노동수기는 아카이브가 담아야 할 기록이 무엇인지를 증거 하고 있다. 아카이브가 그 기록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기록하는 일이 저항의 한 방식’이라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박일환 2017.1, 82).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무엇을 기록으로 남길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 글은 비정규노동 문제와 관련된 사건과 행위를 발견하기 위해 잡지 『비정규노동』에 주목하였다.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¹⁾는 매년 비정규 노동

수기를 공모하여 잡지 『비정규노동』에 게재하고 있다. 이 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 25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²⁾

2. 기록되지 않은 노동, 그리고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지금, 여기, 우리’의 기록과 기억을 남겨야 한다. 아카이브는 “사람의 흔적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곽차섭 2002, 171) 기록을 기록화해야 한다. 곧 사람의 감정과 의식이 재현되어있는 기록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공공“아카이브에 소장된 기록은 행정 행위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곽건홍 2011, 6).

첫째, 비정규노동은 기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방노동청 기록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기록은 보존 기간이 매우 짧게 책정되어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 비정규노동 관련 통계 조사기록인 「고용형태별 개인조사표」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작업장 실태조사 기록인 「차체취약사업장점검」, 「사업체 고용형태 근로실태 조사」, 「기간제근로자 현황 조사표」등의 기록 또한 모두 3년이다. 「공공근로요원 근무일지」, 「인턴관계철」등 공공근로 관련 기록철도 대부분 보존기간이 3년이다. 직업상담사 관련 기록인 「직업상담원 근로계약서」는 5년, 「직업상담원 응시원서」는 10년이다(대전지방노동청 2015). 생산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방노동청 기록 가운데 비정규노동 관련 기록은 보존 기간을 과소 책정하여 폐기되는 실정이다.

- 1)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파악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5월 설립되었다. 2001년 4월부터 잡지 『비정규노동』을 발간하고 있다(<http://www.workingvoice.net/x/>).
- 2) 당선작은 “비정규 노동수기 공모 취지를 살려 비정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자성을 통해 현실과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바뀌나가며 스스로 변해가는 이야기에 비중을 실어 글을 선정”하고 있다(김해경 외 2020.1. 작지만 소중한 노동의 기록. 『비정규노동』, 140, 73).

기록을 가장 충실하게 남겼다고 평가되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을 살펴보자.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한 비정규노동 관련 기록은 대부분 비정규직 관련 입법추진 기록³⁾, 비정규직 통계 관련 기록 등이다.⁴⁾

공공기록 가운데 비정규노동을 증거 하는 기록은 법률기록, 통계 기록 등을 위주로 남겨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에 ‘편향된’ 노동정책을 드러내는 기록, 잘못된 법령 운영으로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비정규 노동자의 기록, 비정규노동 문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업의 불법 노동행위 기록이 남겨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기록을 철저히 생산하고, 관리해서 비정규노동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 법률 집행 관련 증거기록을 남긴다 해도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드러내는 기록이 남겨질까? 공공기록이 많이 남겨진다고 해서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둘째, 아카이브는 비정규노동을 기록화하지 않는다. 현재사(現在史)를 구성하는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노동 문제이며, 노동 문제는 곧 비정규노동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연구에서 비정규노동은 통계 수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김원 2012, 194). 이러한 원인은 노동자의 “경험과 의식의 세계”(김준 2002, 62)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록이 아카이브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카이브는 거시사를 구성하는 노동 관련 기록 일부를 파편적으로 저장하고 있을 뿐이다. 거시사를 서술하는 데에만 일부 도움이 되는 기록으로 아카이브는 오늘의 시대를 기록으로 증거 했다 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서발턴⁵⁾은 망각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관실. 2005.2.23. 「비정규직 입법 관련 당정 간담회 결과」;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관실. 2005.2.24. 「비정규직 입법추진 동향」 등.

4)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관실. 2005.11.3. 「비정규직 통계 오류사건 처리경위 보고」 등.

5) 이 글에서는 서발턴(subaltern)을 “침묵을 강요당해 배제당하고 소외당한 자를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전정환 2011, 227). 서발턴 개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택현. 2008. 다시, 서발턴은 누구/무엇인가?. 『역사학보』, 200, 637-663 참조.

고 여전히 서발턴은 기억되어야 하며 그들의 말은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남긴 ‘흔적’을 찾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기억과 사건이라는 ‘흔적’을 남겼다.”(김원 2012, 203-204)

따라서 ‘지금, 여기, 우리의’ 아카이브는 노동기록의 부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흔적을 기록화해야 한다. 곧 비정규 노동자의 ‘행위와 고통을 기록으로 재현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억압적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당대 아카이브의 책무이다(곽건홍 2011, 9). 노동수기 등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표상하는 기록이 현재사를 상징하는 기록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아카이브는 이를 기록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은 철저하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고용은 유지한 상태여서 실업 문제로 취급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권리와 대우를 받고 있지도 못하다. 사회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그리고 해직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들은 그간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박상흡·이용식, 2001 여름, 288)

요컨대 노동은 기록되지 않았고, 아카이브는 기록화하지 않았다. 비정규 노동자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은 노동에 대해 아카이브는 무엇을 할 것인가?

3. 자기재현의 비정규노동 수기가 말하는 것들

1970년대 노동사 연구에서 노동수기는 “청춘을 공장에 바친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경험과 의식의 세계”(김준 2002, 62)를 불러내는 기록이다.

“그 일은 ‘노동’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잘 불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들은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생존을 위해 일하고, 노동을 통해 세상과 만나며, 차별에 맞서고 있다.”(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2016, 9)

2020년 현재 축적되고 있는 비정규노동 수기 또한 보이지 않는 노동의 실태를 증거 하고,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으로서 그 가치가 있다. 비정규노동 수기에서 주목할 점은 비정규 노동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이다. 곧 어떤 기억, 어떤 사건과 행위를 남기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김원 2012, 204).

첫째, 다양한 노동형태는 비정규노동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을 근로 형태별로 한시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김복순, 2020.1, 129). 그러나 비정규 노동형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1) ‘기간제,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인 직접고용 비정규직’, (2) ‘고용계약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다른 노동자들인 간접고용 비정규직. 이들은 파견직, 사내하청, 외주용역’ 등이다. (3)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화물운송 기사,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등을 들 수 있다(하종강, 2007 가을, 12-13).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잡지 『비정규노동』에 수록된 노동수기는 비정규 노동자의 다양한 노동형태를 보여준다. 곧 “비정규직은 천차만별이어서 직종마다 노동 현실과 조건이 다르며, 같은 직종이라도 각각의 개인이 처한 현실과 조건 또한 다릅니다. 이러한 직종 간, 개인 간의 차이가 바로 내 수기의 개성이자 정체성”(김하정, 2019.1, 79)이라는 언급은 비정규노동 수기의 특징을 드러낸다.

노동수기에 등장하는 노동형태는 학습지교사, 아르바이트 노동자, 해고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인 지방노동청 고용센터 상담사, 병원노동

자, 자동차판매 노동자, 케이블방송 비정규노동자, 여러 비정규노동을 전전하는 노동자, 방송작가, 대리운전 노동자, 마트 노동자, 학교 비정규 노동자인 교무행정사, 카페 아르바이트 노동자, 학교 급식조리사, 학교의 방과후강사 노동자, 킥 서비스 노동자, 노인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 호텔 청소 노동자, 도서관 사서, 비정규 근로지원센터 활동가 등 실로 매우 다양하다. 학교라는 같은 공간에서도 비정규 노동자는 분절화 되어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이 된 8시간 전일 노동자, 8시간 근무지만 무기계약이 아닌 단기 노동자, 4시간 근무 노동자, 2시간 50분 근무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4시간부터 1시간, 1시간 반 근무인 봉사직 등으로 수없이 쪼개져”있다(강선화 2020.1, 58).

비정규 노동수기를 남긴 사람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여성 비정규노동 또한 매우 이질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비정규노동이 행해지는 장소가 사회 곳곳으로 확대되었음을 알려준다. 노동수기에 드러난 장소는 국회, 노동청, 노동청 고용센터 등 공공기관, 학교, 성당, 병원, 백화점, 케이블 방송사, 지역 방송국, 학습지 회사, 제약회사, 마트, 자동차판매 대리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매우 다양하다. 요컨대 비정규노동 수기는 결코 동질적이지 않은 비정규노동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표 1〉 잡지 『비정규노동』의 비정규노동 수기 정보

1	제목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쟁했다				
	생산자	여민희	노동형태	학습지교사	생산연도	2015
	단체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장소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본사
	키워드	재능교육, 학습지, 혜화동 성당 종탑 농성, 노동조합				

2	제목	나도 '노동자'입니다				
	생산자	이가현	노동형태	아르바이트 노동자	생산연도	2015
	단체	아르바이트노조			장소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키워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해고, 4대보험, 웹툰 <송곳>				

3	제목	반드시 한 놈은 뚫고 나온다				
	생산자	이영숙	노동형태	해고노동자	생산연도	2015
	단체	신풍제약주식회사			장소	안산노동지 청
	키워드	파견직, 불법파견, 해고, 한국노총, 1인 시위, 드라마 <송곳>				

4	제목	상담사 분투기				
	생산자	장지연(익 명)	노동형태	고용센터 상 담원	생산연도	2015
	단체	고용노동부 노동센터. 상담사 노동조합			장소	
	키워드	무기계약직, 상담사, 임금 차별,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5	제목	주차도우미 감정 노동				
	생산자	황금별	노동형태	학생	생산연도	2015
	단체				장소	백화점
	키워드	첫 아르바이트, 감정 노동				

6	제목	거위의 꿈				
	생산자	한재호	노동형태	병원노동자	생산연도	2016
	단체				장소	병원
	키워드	정규직, 상용직, 저임금, 간호조무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7	제목	자동차 영업사원의 눈물				
	생산자	김선영	노동형태	자동차 판매 노동자	생산연도	2016
	단체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 현대차 동차, 현대기아자동차. 금속노조			장소	현대자동차 석촌대리점, 안산중앙대 리점
	키워드	동일노동 차별대우. 원청. 갑질, 폭언, 폭행 등 인권 유린. 대리점 비정규 판매 노동자. 블랙리스트				

8	제목	가로등 불빛 아래				
	생산자	김승호	노동형태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생산연도	2016
	단체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 브로드지부, 태광 티브로드			장소	서울 명동 티 브로드 본사, 국회
	키워드	직접 고용, 외주화, 개인사업자, 영업 부진자 교육, 대량 해고, 복직 투쟁				

9	제목	비정규직인가? 생구(生口)인가?				
	생산자	최광희	노동형태	비정규직 노 동자	생산연도	2016
	단체				장소	성동근로자 복지센터
	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정리해고, 구조조정, 노동법, 근로기준법				

10	제목	나의 옛날이야기				
	생산자	함소영	노동형태	방송작가	생산연도	2016
	단체	언론노동조합 작가노동조합 유니온			장소	지역 방송국
	키워드	프리랜서, 방송작가				

11	제목	조롱받지 않을 권리				
	생산자	방송범	노동형태	상근 활동가	생산연도	2017
	단체	休서울이동노동자쉼터. 전국대리운전노동조 합			장소	국회
	키워드	대리운전 노동자, 퀵 서비스 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폭력, 폭언, 산업재 해, 열시, 조롱, 노동부, 콜센터				

12	제목	함께 그리고 다같이				
	생산자	김영희	노동형태	마트 노동자	생산연도	2017
	단체				장소	마트
	키워드	폭언, 마트 노동조합, 경비노동자, 자존감				

13	제목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생산자	오미영 (가명)	노동형태	교무행정사	생산연도	2017
	단체				장소	학교
	키워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출산 휴가,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비정규직 노 동자				

14	제목	당신이 만나는 벨의 속사정				
	생산자	하윤정	노동형태	아르바이트 노동자	생산연도	2017
	단체				장소	카페
	키워드	시급, 실업 급여, 알바인권선언, 알바노조				

15	제목	나는 프리랜서입니다				
	생산자	함은선	노동형태	방송작가	생산연도	2017
	단체	방송작가 유니온			장소	방송국
	키워드	막내 작가, 4대 보험, 외주제작사, 비정규직 방송작가				

16	제목	골병과 정년				
	생산자	이미선	노동형태	학교 급식 조 리사	생산연도	2018
	단체				장소	학교
	키워드	산업 안전, 영양 교사, 연차 강요, 안전사고				

17	제목	방과후강사도 노동자다				
	생산자	김경희	노동형태	방과후강사 노동자	생산연도	2018
	단체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방과후권익실현센터			장소	학교
	키워드	강사제임용, 차별,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18	제목	아직도 직업엔 귀천이 있다				
	생산자	김종태	노동형태	퀵서비스 노 동자	생산연도	2018
	단체				장소	
	키워드	퀵서비스 노동자, 차별, 무시, 모욕,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연맹				

19	제목	나는 독거노인입니다				
	생산자	고현종 구술, 장순애 기록	노동형태	노인 노동	생산연도	2018
	단체	노년유니온			장소	
	키워드	생애사 구술, 식모, 파출부, 가정관리사, 가사노동자				

20	제목	새해에는 뭐하시나요?				
	생산자	최영일	노동형태	LG 유플러스 설치·수리 노동자	생산연도	2018
	단체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LG그룹			장소	LG그룹 쌍둥이빌딩
	키워드	하청노동자, 인터넷 설치 수리, 갑질, 원청, 하청 업체, 부당노동행위, 노 숙투쟁, 단식투쟁				

21	제목	비정규 투쟁 한가운데에 서서				
	생산자	이세운	노동형태	티브로드 설 치·수리 노동 자	생산연도	2019
	단체	티브로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조, LG 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 딜라이브 비 정규직 노조, 다산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장소	택배회사, 한강대교, 국회 앞
	키워드	하청 업체, 구타, 노숙투쟁, 단식투쟁, 직접고용, 고용 보장				

22	제목	20년 이상 장기근속이 최인가?				
	생산자	허지희	노동형태	세종호텔 청 소 노동자	생산연도	2019
	단체	세종호텔 노동조합			장소	세종호텔
	키워드	여용노조, 복수노조, 전환 배치, 성과연봉제				

23	제목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생산자	강선화	노동형태	도서관 사서	생산연도	2019
	단체	서울시 교육청			장소	학교
	키워드	돌봄 교사, 전산 교사, 사서 교사				

24	제목	직영은 들어오면 안됩니다				
	생산자	김중희	노동형태	활동가	생산연도	2019
	단체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장소	조선소
	키워드	조선업, 현대중공업, 여성노동자, 유해물질, 방독마스크, 산업안전				

25	제목	새벽에 길을 나서면				
	생산자	제희덕	노동형태	노인 노동	생산연도	2019
	단체	여성발전센터			장소	
	키워드	요양보호사 교육원, 경비원, 상가 관리인, 요양보호사, 공공 일자리				

둘째, 비정규노동 수기는 여러 형태의 ‘차별’을 말하고 있다.

(1) 비정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임금 차별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다. 수당 또한 차별한다.

“58만 200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만 주 6일, 그리고 집에서 주 1 일 그렇게 주 7일 근무하며 한 달에 받는 월급입니다.”(함은선 2018, 57)

“임금은 취업 첫해부터 150만 원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도 150만 원 수준이다. … 걸어서 출근하라는 건지 교통비도 없고, 점심도 먹지 말라는 건지 식비도 없고, 명절도 지내지 말라는 건지 공무원들에게 다 주는 명절 상여금도 없다.”(장지연 2016.1, 72)

(2) 여기에 “사용주들로부터의 차별과 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의 차별”이 있다(박상흡·이용식 2001, 291).

“주임은… “네가 가서 사과해”라고 말했다. “제가요?”라고 되물었더니, “남자 손님이니까 가서 사과 좀 해. 너 여자잖아. 도우미가 낫지 수신희보다”라는 것이다.”(황금별 2016.1, 79)

“벌써 6년이 지난 일인데도 서러웠던 그 울컥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다행히 흉터는 남지 않았지만 말이다. 화상 입고 며칠 후 영양교사에게 데였다는 말을 했다. 내 말을 듣고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래요?” 하는 말이 내가 들은 전부였다.”(이미선 2019.1, 45)

“언젠가 한 강사가 교무실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학교 교사가 “선생님, 그 커피머신 방과후강사들 마시라고 사놓은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이 돈 모아서 사 놓은 기계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김경희 2019.1, 56)

(3) <표 1> ‘키워드’에서 보듯이 작업현장에서 느껴지는 갑질·폭력·폭언·멸시·조롱·모욕·무시 등의 인격 차별이다. 작업현장에서는 욕설과 폭언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다. 곧 비정규노동 수기는 비정규노동의 “감춰진 충격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김원 2012.2, 199).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는 심지어 “소나 돼지처럼 거래되거나 그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生口)”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최광희 2017.1, 72).

“빨리 계산이나 해라. 이 가시나가 어디서 이딴 짓이고, 빨리해!...이 년이 나이깨나 치무가 도둑질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해 먹었노. 시끄럽고. 이 가시나가 멀쩡하게 생겨가, 너그 사장도 니가 도둑년인 거 아냐...이렇게 사니 이런 데 서 있지. 니 새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추잡한 년...”(김영희. 2018.1, 38).

“(자동차) 대리점 판매 노동자들은 원청과 대리점 소장들의 온갖 갑질과 횡포, 착취뿐 아니라 폭언 및 폭행 등의 인권 유린까지 겪으면서 노예처럼 근무하고 있다. 막말은 기본이고 맘에 안 들면 수시로 해고를 남발한다.”(김선영 2017.1. 56)

“나는 해고를 인정할 수 없어 매일 출근투쟁을 했다. 대리점 소장은 조회시간마다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40분 가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시작했다. 그래도 매일 출근을 하니 이제 침을 뱉고, 목을 조르고, 때리고, 팔을 꺾고, 발로 차고, 눈을 찌르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고...강제추행을 하고 집에 찾아가서 칼로 죽이겠다는 끔찍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김선영 2017.1. 58)

(4) 마침내 ‘차별’은 사회적으로 일상화되고, 또 내면화되었다고 노동수기는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 당하는 설움은 안전사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년 전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교장 선생님이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내 사위 삼고 싶은데 비정규직이라 안 돼.”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 있는 데서도 여러 차례 서슴없이 했다. 그 장본인과 듣는 우리들은 얼마나 민망해했는지 모른다.”(이미션 2019.1, 49)

“갑은 학교장, 을은 방과후부장, 병은 코디나 행정실무사. 그러니 대부분 방과후강사들은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보다는 프리랜서라고

착각하고 살면서도 기실 70여 종이 학교 직종 중에서 존재감이 가장 낮은 직업군일 것이다.”(김경희 2019.1, 53)

“며칠 전, 울산에서 방과후강사들이 기자회견을 하였다. 강사들은 학교에 주차를 못하고, 위탁 회사에 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떼인다고 증언한다. 또 심폐소생술 교육 중에 건강식품이나 크루즈여행권 영업을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김경희 2019.1, 54)

셋째, 비정규 노동자 일상생활의 팍팍함을 날 것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통장 잔액이 어김없이 세자릿수를 가리킨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러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도 이젠 없다. 냉장고는 텅텅 빈 지 오래다. 주머니에 남은 몇백 원, 가방 구석에 숨어 있던 몇백 원을 모아 마트에서 천 원짜리 콩나물을 사 왔다. 팔팔 끓인 물에 콩나물을 넣고 소금을 뿌리고, 냉동고에 묵혀뒀던 청양고추도 꺼내 잔뜩 넣었다. 그래야 국 한순간에 밥이라도 잔뜩 먹을 수 있을 테니.”(이가현 2016.1, 56)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 일을 한다. 꼬르륵 소리에 고개 들면 12시다. 근처 구청 식당에서 4천 원짜리 점심을 폭풍흡입한다. 회사로부터 식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데 4천 원도 만만찮다. 밥값 때문인지 점심시간도 아까운지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장지연 2016.1, 70)

넷째, 비정규 노동수기는 ‘개인에서 조직으로’ 문제의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곧 노동조합의 중요성, 노동자 투쟁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당시 내가 알고 있던 노동조합은 파업한다고 공장에서 일도 하지 않고, 뺨하면 데모나 하겠다며 길거리에 나오는 통에 교통 체증이나 불

러오고, 북한 사상에 물들어 있으며, 지금도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조금 더 받아내겠다고 돈에 환장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기적인 집단 정도였던 것 같다.”(이세운 2020.1, 45)

“주인공들은 처음에 ‘나’라는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갈수록 ‘나’는 혼자자가 아닌 조직 혹은 단체 속의 개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처음엔 답답하고 억울해도 참지만 점차 부당한 현실에 맞서면서 노동조합을 알게 되고, 여럿이 함께 현실을 변화시키는 행동에 나서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라는 개인은 새로운 갈등과 대립, 좌절과 희망을 맛보며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김하정, 2019.1, 82)

“노동조합을 시작하고, 투쟁을 할 때도, 떠나고 싶었을 때도, 다시 돌아올 것을 결심했을 때도 단 한가지였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여민희 2016.1, 55)

“해고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은 자신과 같은 이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싸워내는 일이다.”(이가현 2016.1, 56)

다섯째, 비정규노동 수기는 노동자들의 내면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어느 인터넷 설치 노동자는 자신을 “기업의 부품”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존감의 상실을 얘기한다.

“나는 자명종의 부품처럼 기계적으로 일어나 기업의 부품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부품처럼 살아왔구나! 나는 앞으로도 부품처럼 살아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슬프고 화나기는 하지만 이내 체념하고 기계의 부품이 되어 출근합니다.”(최영열 2019.1, 74)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백수도 많다는데 그래도 난 일자리

는 있으니.'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갈 수밖에. 그리고 시간은 알뜰
게도 한 해, 한 해 흘러갔다.”(이세운 20201, 45)

“정규직과의 비교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며 자존감은 바닥을
친다. 늘 배고프며, ...비정규직은 힘겹게 일하고 적은 급여로 가난하게
살아가며, 목숨 줄은 계약서의 ‘갑’에게 잡혀있다.”(최광희 2017.1, 75)

요컨대 비정규노동 수기는 비정규노동 실태를 낱낱이 말하고 있으며, 비
정규 노동자의 삶을 증언하고 있다.

4. 무엇을 기록화할 것인가?

아카이브는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을 남기고, 재현해야 하는가? 아카이브
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할 것인가? 아카이브가 무엇을 기록화할 것인
가의 문제는 곧 아카이브 철학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비정규노동 수기가 말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록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서발턴들의 기록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야 한다. 기록하는 것이 곧 비틀린 현실에 저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기억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당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는 일은 그 과정을 통해 나와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실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과 다른 현실을 만들어 갈 것
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
기한다면 기록에 나서서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박일환
2017.1, 82).

둘째,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생한 삶의 흔적을 기록화해야 한다. 조직·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자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역사이기 때문이다. “호명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의 개인사를 복기하려는 시도”(김원 2012.2, 204)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삶의 ‘흔적’을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개인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지금도 보이지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술한 배에 맞서 싸우고 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김하정 2019.1, 79)

나아가 비정규 노동자 내면의 감정과 생활까지도 기록화의 범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지금 시대의 ‘살아 있는’ 기록을 미래의 ‘살아 있는’ 아카이브에서 대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수기가 말하고 있는 ‘차이’와 ‘차별’, 작업현장에 대한 ‘폭로’를 기록화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노동의 기록화 대상은 문서에 국한되지 않는다.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서발턴들의 삶을 재현하는 매체는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곧 “시, 소설, 문학, 다큐멘터리, 수기, 르포, 연극, 타령, 춤, 굿, 신세 타령, 그림 등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다. 또한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은 자신의 행위 의도를 초과하는 감정과 경험을 흐느낌이나 울음, 떨림 등 소리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드러낸다(김원 2012.2, 206). 따라서 비정규노동을 말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를 기록화의 범주로 설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아카이브는 현재를 기록하는 장소여야 한다. 과거의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의 기록이 없으면, 미래에도 기록이 없는 아카이브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계로부터 자기재현의 기록으로, 거시에

서 미시로, 국가에서 일상으로 아카이브가 자기 철학을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대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이다.

〈참고문헌〉

- 강선화. 2020.1.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비정규노동』, 140, 54-59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곽차섭. 2002. '새로운 역사학'의 입장에서 본 생활사의 개념과 방향. 『역사와 경계』, 45.
- 김경희. 2019.1. 방과후강사도 노동자다. 『비정규노동』, 134, 52-58.
- 김복순. 2020.1. 2019년 비정규직 규모와 특징: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125-143.
- 김선영. 2017.1. 자동차 영업사원의 눈물. 『비정규노동』, 122, 55-62.
- 김성환. 2012.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37, 353-386
- 김성희. 2010. 노동해도 삶의 희망이 없다: 비정규화, 노동빈곤, 양극화. 『내일을 여는 역사』, 41, 54-76.
- 김영희. 2018.1. 함께, 그리고 다같이. 『비정규노동』, 128, 37-41.
- 김원. 2012.2. 서발턴의 재림 : 2000년대 르포에 나타난 99%의 현실. 『실천문학』, 192-206.
- 김준. 2002.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의식. 『역사연구』, 10, 53-99.
- 김하경. 2019.1. 수기는 감동과 위로다. 『비정규노동』, 134, 79-80.
- 김하경 외. 2020.1. 작지만 소중한 노동의 기록. 『비정규노동』, 140, 71-73.
- 대전지방노동청. 2015. 『2015년 기록물 평가 검토서(심의회)』.
- 박일환. 2017.1. 기록 또한 저항의 한 방식이다. 『비정규노동』, 122, 82-83.
- 방승범. 2018.1. 조롱받지 않을 권리. 『비정규노동』, 128, 32-36.
- 서울기록원. 2019.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 사업 완료 보고서, 1-319.
- 신병현. 2006. 70년대 지배적인 담론구성체들과 노동자들의 글쓰기. 『산업노동연구』, 12(1), 191-222.
- 안미선. 2018.1. 우리시대 노동이야기. 『비정규노동』, 128, 63-64.
- 여민희. 2016.1.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쟁했다. 『비정규노동』, 116, 46-55.
-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2016. 『숨겨진 여성의 일이야기, 기록되지 않은 노동』, 삶창.
- 이가현. 2016.1. 나도 '노동자'입니다. 『비정규노동』, 116, 56-61.

- 이미선. 2019.1. 골병과 정년. 『비정규노동』, 134, 44-51.
- 이세운. 2020.1. 비정규 투쟁 한가운데에 서서. 『비정규노동』, 140, 42-48.
- 이영숙. 2016.1. 반드시 한 놈은 풀고 나온다. 『비정규노동』, 116, 63-68.
- 장성규. 2012. 1980년대 노동자문집과 서발틴의 자기재현 전략. 『민족문화사연구』, 50, 257-279
- 장지연. 2016.1. 상담사 분투기. 『비정규노동』, 116, 70-75.
- 천정환. 2011. 서발틴은 쓸 수 있는가 :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화사연구』, 47, 224-254.
- 최광희. 2017.1. 비정규직인가? 생구(生口)인가?. 『비정규노동』, 122, 72-77.
- 최영열. 2019.1. 새해에는 뭐하시나요?. 『비정규노동』, 134, 72-78.
- 편집자주. 2017.1. 2016 비정규 노동 수기 공모전 당선작. 『비정규노동』, 122, 47.
- 하윤정. 2018.1. 당신이 만나는 벨의 속사정. 『비정규노동』, 128, 49-56.
- 하종강. 2007 여름. 비정규직 노동자: 불안의 일상화, 비상식의 상식화. 『황해문화』, 10-24.
- 함은선. 2018.1. 나는 프리랜서입니다. 『비정규노동』, 128, 57-62.
- 황금별. 2016.1. 주차도우미 감정 노동. 『비정규노동』, 116, 76-83
- Fleming David. 2015. A Sense of Justice: Museums as Human Rights Actors. 『ICOM News』 no.1, ICOM, 8.